

【논문】

## 李一善을 통해 본 清初 朝鮮通事의 대인 관계와 양면성\*

劉潤澤\*\*

### 目 次

- I. 머리말
- II. 이일선의 생애
- III. 조선통사의 대인관계
- IV. 조선출신 기인의 양면성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일선은 순치·강희 연간의 청나라 조선통사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여러 차례 통관, 제독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다. 그는 조선에 광범위한 인맥이 있었고 자주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조선에 있는 친척과 친구를 도왔다. 특히 이일선은 조선 사역원의 역관과 빈번히 교류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일선 등 조선통사들은 청나라의 관원이자 기인으로 이미 만주 사회에 동화된 인물이었지만, 조선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지녔으며 조선에 조언, 정보 또는 도움을 제공했다. 이일선은 조선통사의 수장으로 당시 여전히 불안정했던 조청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덕분에 조선 조정은 여러 차례 조청 관계에서 불리한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시켰다. 조선 관리들은 이일선에 대해 모순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에서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여겨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 조정에게 소중한 협력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주제어: 이일선, 조선통사, 조선출신 기인, 역관

\* 이 연구는 清代東北族群互動與國家治理研究(RUC24QSDL106)에 의해 지원되었음.

\*\* 중국인민대학 박사과정.

## I. 머리말

李一善(李一先)은 청측 기록에는 伊爾色尼, 宜爾色尼 등으로 불린 滿洲正白旗 소속의 보오이(booi, 包衣)였다. 그는 순치 말기와 강희 초기에 활동한 청측의 조선통사(solho tungse, solho hafumbukū, 朝鮮通事)로, 그의 활동은 鄭命壽 이후 청-조선 관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청나라의 조선 통사는 조선출신 旗人들이 담당했다. 그들은 청나라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거나 청나라로 납치된 조선인과 그들의 후손들이었다는 점에서 청나라의 기인이었지만 민족적으로 조선인이라 할 수도 있다. 劉小萌과 黃麗君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조선출신 기인들은 조선에 대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sup>1)</sup> 조선통사들은 조청관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그들의 조선에 대한 유대감은 더욱 뚜렷했고, 정체성도 더욱 복잡했다. 張存武에 의하면, 그들의 혈통과 문화는 조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경계인(marginal man)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생계를 꾸리고, 이익을 챙기며, 경험이 풍부하고 현실적인 사상을 가지지만, 소속된 국가에 대해 반드시 절대적으로 충실하지 않을 것이다.<sup>2)</sup> 이런 상황은 명초 조선출신 환관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sup>3)</sup>

조선에 파견된 칙사들은 대부분 임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조선을 방문했을 때 조선 사무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조선통사들이 조선 사무를 전담하고 자주 조선을 방문했다. 그래서 고위 관료인 칙사가 오히려 자주 직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선통사들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조선통사들이 조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런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조선 조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1) 劉小萌, 2013, 「旗籍朝鮮人安氏の家世與家事」, 『清史研究』 4, 17쪽; 黃麗君, 2019, 「八旗制度與族群認同: 清前期中朝關係史中的內務府高麗佐領金氏家族」, 『清史研究』 2, 70-75쪽.

2) 張存武, 2023, 「朝鮮對清外交機密費之研究」, 『清代中韓關係史論集』 2, 台北: 秀威出版, 262쪽.

3) 曹永祿, 1990, 「鮮初の 朝鮮出身 明使考—成宗朝의 對明交涉과 明使 鄭同」, 『국사관논총』 14, 117쪽; 鄭求先, 2004, 「鮮初 朝鮮出身 明使臣의 行跡」, 『慶州史學』 23, 127-137쪽; Sixiang Wang, 2023, *Boundless Winds of Empire: Rhetoric and Ritual in Early Chosŏn Diplomacy with Ming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174-177.

조선 조정도 조선통사들의 영향력과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 조정은 자주 조선통사들에게 조언을 청하고 정보를 묻고 심지어 주선을 부탁했다. 청나라의 조선통사들이 조선 사역원의 역관<sup>4)</sup>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조선 조정도 때때로 이런 관계를 이용하여 조선측 역관을 통해 조선통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조선 군신들은 조선통사들을 흉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크게 비판하면서도 그들을 공신이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했다. 이일선은 四品 掌會同館印務員外郎직을 맡은 조선통사의 수장이었다. 다른 조선통사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조선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조선통사들 가운데도 조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통사 제도, 그리고 그들의 가족 및 직책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이 나왔다. 朴泓燕은 청나라 입관 전 조선통사 제도의 설립 과정, 입관 후 조선통사 제도의 발전, 조선통사의 직책, 그리고 조선통사 가족의 활동과 가족 건설 상황을 연구했다.<sup>5)</sup> 任桂淳과 俞海燕은 조선통사 제도의 설립, 조선통사의 교육과 선발, 그리고 조선통사가 청나라에 끼친 영향을 논의했다.<sup>6)</sup> 李丹은 會同四譯館 조선통사의 배치, 선발 및 고과, 직책 및 역할, 그리고 조선통사의 월관문제를 다루었다.<sup>7)</sup> 李忠輝는 조선통사 가족의 형성, 교체, 쇠락의 이유를 밝혀 통사 가족의 성쇠와 정치, 언어의 관련을 드러냈다.<sup>8)</sup> 리충휘와 柳楊은 표류민 구조 중 조선통사의 역할을 살폈다.<sup>9)</sup> 劉建勳은 조선통사의 설립, 변천 및 쇠소를 조사했으며, 조선통사가 조청 무역, 조선 표류민의 구조, 청사의 사행, 조선사행 중의 역할을 분석했다.<sup>10)</sup>

4) 조선 사역원의 역관들은 '통사'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청나라의 조선통사와 구분하기 위해 조선 사역원의 역관들을 모두 '역관'이라고 통칭한다. 본고에 쓴 모든 '통사'는 청나라의 조선 통사를 가리킨다.

5) 朴泓燕, 2011, 『淸代八旗朝鮮通事研究』, 北京師範大學 석사학위 논문.

6) 任桂淳·俞海燕, 2013, 「淸初滿洲八旗通事官述略」, 『紀念王鍾翰先生百年誕辰學術文集』,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7) 金錦子·李丹, 2017, 「淸朝會同四譯館中的朝鮮通事考論」,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6; 李丹, 2017, 『試論淸朝會同四譯館中的朝鮮通事』, 延邊大學 석사학위 논문.

8) 李忠輝, 2019, 「淸代朝鮮通事家族的形成、更迭與衰落—政治與語言的抉擇」, 『民族翻譯』 4.

9) 李忠輝·柳楊, 2020, 「淸代朝鮮通事在朝鮮漂民救助中的作用考析」, 『民族翻譯』 4.

10) 劉建勳, 2023, 『淸代朝鮮通事研究』, 中國人民大學 석사학위 논문.

劉潤澤은 시대별 조선통사 사례를 통해 청 조선통사들의 조선·만주 이중 정체성을 분석하였다.<sup>11)</sup>

많은 조선통사들이 조청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들 개개인의 삶이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장 유명한 통사인 鄭命壽,<sup>12)</sup> 진룡 시기에 크게 활약한 徐宗順<sup>13)</sup> 그리고 통사로 출발했지만 통사보다는 팔기 좌령(nuru jen, 佐領)으로 널리 알려진 金新達里<sup>14)</sup>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순치-강희 시기의 중요한 조선통사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필자는 청대 조선통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일선의 사례를 사용한 바 있지만, 조선통사의 수장이었던 이일선은 조청관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특히 이일선이 활약하던 시대에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결코 우호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두 나라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긴장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sup>15)</sup> “主弱臣強說” 사건과 三道溝 사건 이후 조선 국왕에 대한 “察議” 요구 등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일선은 이러한 사건들의 원만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그가 살던 시대에서 조선 조정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일선 개인의 생애와 대인관계, 그의 모순적인 정체성,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이 초래한 거대한 영향에 대해 더욱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필자는 청

11) Runze Liu, 2024, “The Identity of Joseon Interpreters in the Qing Empire”,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7, no. 1.

12) 楊海英, 2002, 「朝鮮通事古爾馬洪(鄭命壽)考」, 『民族史研究』 3; 김남윤, 2007, 「병자호란 직후(1637~1644) 朝鮮 관계에서 ‘淸譯’의 존재」, 『韓國文化』 40; 김선민, 2014, 「朝鮮通事 굴마훈, 淸譯 鄭命壽」, 『淸史研究』 41; 郭壽, 2017, 『淸鮮交涉中的 鄭命壽(1633-1653)』, 東北師範大學 석사학위 논문; 조일수, 2022, 「찬출(撰出)된 악한, 정명수와 『인조실록』의 개찬」, 『한국학연구』 66.

13) 李丹, 2019, 「朝鮮通事群體與朝鮮關係研究—以鳳城徐氏家族爲中心」, 『한중인문학연구』 65; 劉潤澤, 2022, 「鳳凰城通事徐宗順活動考」, 『東北亞外語研究』 4.

14) 우경섭, 2009, 「17세기 전반 滿洲로 歸附한 朝鮮인들—『八旗滿洲氏族通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8; 李丹, 2018, 「明末淸初朝鮮移民金氏新達理家族研究」, 『中州學刊』 第5期; 李忠輝, 2019, 「清代高麗佐領金新達禮兄弟考略」, 『滿族研究』 1期; 박현규, 2021, 「조선출신 滿洲旗人 韓氏·金氏 일족 묘비문과 정착 특징」, 『中國史研究』 132.

15) 王桂東, 2014, 「朝鮮肅宗即位初年淸-朝鮮關係之暗流」, 『中國邊疆民族研究』 第八輯, 125쪽.

중기 조선통사 연구에서 많은 청측 당안을 활용한 바 있으나,<sup>16)</sup> 유감스럽게도 순치·강희 연간에 남아 있는 당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고는 주로 조선 사료를 중심으로, 이일선이 조선을 방문하는 동안의 행적, 그리고 연행사와의 접촉, 그리고 조선 관리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일선이 조청 관계에 미친 영향과 17세기 후반 조선통사의 대인 관계 및 그들이 보여준 양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일선의 생애

리충휘는 이일선의 이름으로 알려진 “依爾色尼”가 그의 조선 한자 이름 “一善”의 만주어 음역이며, 성이 생략된 것도 만주어의 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7)</sup> 『승정원일기』의 기록에서도 이일선의 이씨 친족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일선이 이씨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八旗滿洲氏族通譜』에 따르면, “통씨는 滿洲旗分의 高麗 성씨이며 開州 지역에서 世居했다. 修佐는 正白旗包衣人이었으며, 開州 지역에서 世居했으며. 귀순하러 온 연도를 알지 못한다. (중략) 증손 伊爾色尼는 通事官이었다.”<sup>18)</sup> 한편 1663년 「敕使牌文」의 기록에는 그해 칙사 사절단의 구성원 명단이 다음과 같다. “刑部右侍郎 覺羅 勒, 副使 郎中 海, 提督 加一級 李一善, 大通官 二員. 張繼哲, 金徵生, 次通官 二員: 鄭哲男, 文金, 跟隨 二十二名.” 명단은 또한 뒤에서 각 통관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약칭했다. “提督加一級修, 大通官張, 金, 次通官鄭, 文”.<sup>19)</sup> 여기의 “提督加一級修”은 분명히 이일선의 약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1665년의 「敕使牌文」에서

16) 劉潤澤, 2022, 앞의 논문; Runze Liu, 2024, 앞의 논문.

17) 리충휘, 2021, 「청나라 제1대 조선어통역사의 한어 음역이름에 관한 연구」, 『중국조선어문』 제4호, 66쪽.

18) 弘晷等編, 2002, 『欽定八旗滿洲氏族通譜』 卷七十三, 瀋陽: 遼海出版社, 801쪽. “修氏, 系隸滿洲旗分之高麗一姓, 其氏族世居開州地方. 修佐正白旗包衣人, 世居開州地方, 來歸年分無考……曾孫伊爾色尼原任通事官.”

19) 『승정원일기』 181책, 현종4년 10월 10일.

는 그를 명확하게 “*李一善*”이라고 칭했다.<sup>20)</sup> 따라서 『八旗滿洲氏族通譜』 중의 *伊爾色尼*와 이일선은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 씨는 아마도 이일선이 청나라에 간 후 받은 성씨라고 본다.

李丹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통사는 한어, 만주어, 조선어에 능통했다.<sup>21)</sup> 다만 이일선이 한어 구어에는 능통했다는 증거가 있지만,<sup>22)</sup> 청 초기 조선통사의 한문 능력이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김선민은 정명수가 한문을 읽을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sup>23)</sup>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 조정이 이일선 등 통사에게 보낸 문서를 한글로 번역해야 했고,<sup>24)</sup> 그들도 칙사의 문서를 한문 대신 한글로 번역하여 조선 조정에게 건네주었다.<sup>25)</sup> 조선통사의 한글 번역은 한자에 더 익숙한 조선 관리들에게 “심히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sup>26)</sup> 따라서 적어도 강희 초기까지는 대부분 조선통사들이 한문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일선이 만주 정백기 보오이 신분은 그가 內務府 시스템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친족 중에서도 좌령, 筆帖式, 司庫 등 직위를 맡았던 인물이 있었다.<sup>27)</sup> 옹정 이후의 내무부 奏銷檔에 따르면, 많은 上三旗 조선통사들이 통사 직위를 맡기 전에 내무부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sup>28)</sup> 이일선 역시 조선통사가 되기 전에 이러한 직무를 맡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그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팔기 체계에 융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만주어 능력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심지어 조선의 女真學을 淸學으로 개명한 것도 이일선과 관련이 있었다. 조선의 사역원은 원래 漢學, 蒙古學, 倭學, 女真學으로 나뉘어 있었고 청나라에 항복한 뒤에도 여진학은 원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역원 내에서 가장 낮은 지위

20) 『동문회고』 補編 권9 「詔敕錄」, 17a.

21) 李丹, 2019, 앞의 논문, 226쪽.

22) 『비변사등록』 22책, 현종3년 5월 19일.

23) 김선민, 2014, 앞의 논문, 45쪽.

24) 『승정원일기』 139책, 효종7년 5월 6일.

25) 『조선현종개수실록』 권15, 현종7년 7월 15일.

26) 『승정원일기』 196책, 현종7년 7월 16일.

27) 弘晷等編, 2002, 앞의 책, 801쪽.

28) Runze Liu, 2024, 앞의 논문, 16쪽.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일선은 “너희 나라는 왜 여진학을 이렇게 냉대하는가? 淸學을 모욕하는 것은 청나라를 모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뒤에 1667년 이일선이 “오늘부터 여진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된다. 청학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다시 주장한 후 여진학은 마침내 청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sup>29)</sup>

이일선은 1650년(순치 7년)에 조선 사료에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청과 조선의 통사로 활동했다. 1653년 韓巨源, 金三達理, 李夢善, 金大憲 등 통사들과 함께 刑部尚書 巴哈納의 정명수 탄핵에 참여했다.<sup>30)</sup> 이어 1657년에는 韓巨源의 뒤를 이어 四品 掌會同館印務員外郎직을 맡았다.<sup>31)</sup>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선통사의 역할은 대략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통역자 역할을 하고, 조선 사신들을 이끌고 안내한다. 둘째, 칙사의 수행원으로 조선을 방문한다. 셋째, 會同館 무역과 변경 互市를 감독한다. 넷째, 북경을 오가는 길에 조선 사절단을 호송한다. 다섯째, 청나라 영토로 들어오는 漂流民이나 월경자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sup>32)</sup> 이일선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임무를 제외한 모든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 사절단을 호송하는 일은 鳳凰城 通事의 역할이고,<sup>33)</sup> 조선 표류민들이 만주에 상륙할 경우 그들을 송환하는 일 또한 봉황성 통사의 관할에 속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일선이 사절단 호송과 표류민 송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조선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칙사의 수행원으로 조선에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일선이 여러 번에 ‘提督’의 신분으로 조선에 출사했을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소위 ‘제독’은 掌會同館印務員外郎였다. 청초에 會同館의 업무를 조선

29) 『승정원일기』 204책, 현종9년 9월 13일. “譯官趙東立, 曾前往來北京時, 一善曰, 汝國之慢待女眞學者何也? 夫侮淸學, 乃所以侮淸國也云云. 蓋譯聽, 以漢學爲首, 以女眞學爲最下故也. 今番又曰, 今以女眞學爲號者不可, 改以淸學爲可云云. 依渠所願, 改名以淸學, 似無所妨害矣. 上曰, 何妨也? 壽恒曰, 今後則文書間, 皆以此改稱, 何如? 上曰, 依爲之.”

30) 『동문회고』 原編 권38 「鑿弊」 1, 6a.

31) 『동문회고』 原編 권38 「鑿弊」 1, 31b-32b. “掌會同館印務員外郎”은 조선 사료에서 “提督”이라고 불리웠다.

32) 金錦子, 李丹, 2011, 앞의 논문, 49-50쪽; 李丹, 2019, 앞의 논문, 235쪽; 劉潤澤, 2022, 앞의 논문, 119-122쪽.

33) 劉潤澤, 2022, 앞의 논문, 120쪽.

통사가 일정 기간에 주관했다. 「題為補選朝鮮通事」라는 제본에 따르면 굴마훈(정명수)이 郎中으로 임명되어 主客司會同館의 일을 맡게 된 적이 있었다.<sup>34)</sup> 그 뒤에 한겨원과 이일선이 차례로 회동관을 맡았다.<sup>35)</sup> 1657년(순치 14년) 員外郎品級通事 1인을 설치하여 會同館의 印務를 담당케 하였고, 1673년(강희12년) 폐지되었다.<sup>36)</sup> 따라서 그 이후로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조선통사는 없었다. 1657년부터 이일선은 '제독'으로 조선에 방문하기 시작했으며<sup>37)</sup> 조선 사료에서도 자주 그를 '제독'으로 불렀다. 이일선은 제독으로 조선에 출사하는 동안 여전히 통사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의 지위는 정사나 부사에 가까웠다. 1663년 조선을 방문했을 때 이일선은 대부분 정사나 부사와 같은 위치에 앉았다.<sup>38)</sup> 조선 관리들이 영은문에서 칙사를 배울 때 대통관들과 다른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서 감사를 표했지만 이일선은 "칙사와 함께 말에서 내려서 감사를 표하지 않고 떠났다."<sup>39)</sup> 이일선은 조선 조정에게 제독이 대통관과 다르므로 그의 대우를 개선해야 하고 거듭 요구해서<sup>40)</sup> 결국 정명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sup>41)</sup> 심지어 이일선이 제독으로 출사할 당시 칙사 대우를 요구한 적도 있었으나 이는 거절당했다.<sup>42)</sup>

칙사는 대부분 임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조선을 방문할 때 조선 사무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자주 조선 사무를 전담한 조선통사들에 의존했다. 1662년(강희1년) 刑部尚書 勒得洪이 유황 판매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조선에

34) 郎球等, 「題為補選朝鮮通事」, 順治十年(1653年)四月二十八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內閣全宗, 02-02-012-000823-0014. "coohiyan i tungse i da gūlmahūn de hafan bisire jakade icihiyara hafan obufi juke sy i hoitungguwan yamun be jafabuha bihe."

35) 『동문회고』 原編 권38 「鑿弊」1, 31b-32b. "掌會同館印務員外郎品級加一級伊爾色尼呈稱, 前掌會同館印務願爾馬渾, 郭尼遣往朝鮮國, 一切坐立禮儀俱與副使稍次."

36) 강희 『大清會典』 권73, 1992, 台北: 文海出版社, 3771쪽.

37) 『승정원일기』 145책, 효종8년 4월 2일.

38) 『승정원일기』 181책, 현종4년 11월 7일; 『승정원일기』 181책, 현종4년 11월 11일; 『승정원일기』 181책, 현종 4년 11월 13일.

39) 『승정원일기』 181책, 현종4년 11월 15일. "大通官等, 下馬稱謝, 提督則與勅使同行過去後, 以不得下馬致謝之意, 送言而去矣."

40) 『승정원일기』 145책, 효종8년 4월 2일; 『승정원일기』 158책, 현종즉위년 11월 9일.

41) 『승정원일기』 158책, 현종즉위년 11월 11일.

42) 『조선현종실록』 권7, 현종4년 10월 22일.

출사했을 때 황제가 그에게 “너는 사무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니 이일선의 말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소문도 있었다.<sup>43)</sup> 당시 강희제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 소문을 원전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칙사가 조선 사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통사들에게 의존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일선은 바로 이런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도 동시에 조선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 Ⅲ. 조선통사의 대인관계

이일선이 통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조선에는 그의 친척이 여전히 많이 있었는데, 그는 조선의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이일선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 智甲은 黃州 유생으로 鄉所가 되었다.” 이일선은 아버지에게 僉知 직위를 수여하도록 조선 조정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냈다.<sup>44)</sup> 조선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관직 수여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 초기 조선통사들 사이에서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면, 정명수도 조카가 조선 내의 부유한 지방으로 다섯 차례 전근하고 다섯 등급 승진할 수 있도록 조선 조정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sup>45)</sup> 이일선과 동시대의 통사인 李齡石도 그의 아들에게 萬戶 직위를 수여해 달라고 조선 조정에 요청하기도 했다.<sup>46)</sup>

이일선은 조선에 와 있는 동안 황주에 있는 부친의 댁을 방문한 적도 있었으나,<sup>47)</sup> 조선 관리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효자가 아니었다. 그는 삼촌의 손에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不父其父). 조선 관리들이 이일선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부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43) 『승정원일기』 196책, 현종4년 7월 17일: “茲者升賢, 以大憲之言, 來傳曰, 勅使出來時, 皇帝謂勅使曰, 汝等想必生疎, 凡事一從李一善之言爲之云云.”

44) 『승정원일기』 124책, 효종3년 6월 15일; 3년 6월 18일.

45) 김선민, 2014, 앞의 논문, 41쪽.

46) 『승정원일기』 124책, 효종3년 6월 15일.

47) 『비변사등록』 19책, 효종8년 4월 17일; 『승정원일기』 145책, 효종8년 4월 17일.

부친이 조선관리들의 요청을 전달할 때마다 이일선이 화를 내어 결국 입을 다물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入必逢噴而出).<sup>48)</sup> 즉, 그는 부친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이일선의 사촌 李傳燦은 1676년(숙종2년) 武科에 급제한 후 서울에 올라 그를 만났다.<sup>49)</sup> 1659년 吏曹의 下人은 李後潛, 李後昉 등의 判官과 主簿 帖文을 가져다 주어서 이일선을 기쁘게 했는데,<sup>50)</sup>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들도 이일선의 친척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일선의 처남 가운데 사료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姜蒙齒(姜蒙熾 혹은 姜夢葵), 姜義赤, 姜尙建 등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청-조선 국경 간 무역 활동에 종사했으며, 이일선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들을 비호하고 특권을 제공한 적이 많았다. 한번은 강몽치가 감옥에 갇히자 이일선은 조선 관리들에게 격분하며 소리쳤다. “내가 조선에서 무슨 죽을죄를 지었는가? 나를 죽이려 하지만 죽일 수 없어서 내 처남 강몽치에게 화를 옮기고 죄를 연루시키려 하는 것인가?”<sup>51)</sup> 한편 강의척은 북경에서 빛을 진 후 조선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조선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아 야만 청나라 사람들에게 진 빛을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이일선은 조선 역관들을 통해 채무자를 소집하여 빛을 갚도록 강요하고, 심지어 위협적인 태도로 조선 조정에 채무자를 감금하고 빛을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조선 조정은 결국 그들을 한성부로 이송하여 강제로 돈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sup>52)</sup> 강상건은 兵營의 은화 수백냥을 빌려 썼다가 여러 해 무역에 실패를 거듭한 후 미처 갚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동안 이자가 점차 증가하여 1,000여 냥에 달하게 되었다. 이때에도 이일선은 조선 조정에 강상건의 빛을 탕감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

48) 『승정원일기』 204책, 현종8년 9월 13일. “又曰, 李一善凶悖特甚, 踞床而見其父, 或有所言, 尋常呵叱, 猶善遇其叔云, 蓋一善, 曾養於其叔故也. 上曰, 甚矣, 一善之惡也. 不父其父, 乃至於此. 致和曰, 我國人, 不知一善父子間之若此. 或於站上生事之際, 使其父周旋於一善, 則入必逢噴而出, 其父常以爲悶云矣.”

49) 『승정원일기』 252책, 숙종2년 3월 18일.

50) 『승정원일기』 159책, 현종즉위년 11월 18일. “吏曹下人, 持李後潛·李後昉等判官·主簿帖文以來, 入給於李一善, 則一善大喜.”

51) 『승정원일기』 137책, 효종6년 9월 16일. “李一善, 以前日姜蒙齒再次被囚事, 累發怨恨之言, 臣略已陳達於榻前矣. 今日李一善, 往韓巨源之房, 與巨源同坐, 使差備譯官, 傳言於臣曰, 吾於國家, 有何死罪, 欲殺吾而不得殺, 至於移怒於吾之妻媻姜蒙齒, 欲施緣坐之律乎?”

52) 『승정원일기』 168책, 현종2년 5월 26일.

을 받아들였다.<sup>53)</sup> 또한 이일선은 그의 처남이 연행 사절단에 참여하여 무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sup>54)</sup>

조선에 있는 이일선의 친척들은 그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곤 했다. 1664년 具文治가 水原府使로 있을 때, 이일선의 친척 한 명이 거친 말을 많이 하였으므로 구문치가 분노하여 그에게 곤장을 내렸고, 결국 그는 병을 얻어 사망했다. 그러자 죽은 자의 부친은 이일선에게 편지를 보내 복수를 시도하며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횡포를 부렸으나, 관리들도 감히 문책하지 못하였다.” 이후 신임 수원부사 金始振이 온 후에야 비로소 이를 참수되었다.<sup>55)</sup>

이일선 등 조선통사들에게는 친척 외에 친구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1676년, 이일선은 迎接都監에게 三浦 申永後의 집에 한글 편지를 전달하고 답장을 받아오도록 요청했다. 당시 다른 조선통사들도 영접도감을 통해 조선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sup>56)</sup> 1682년에는 이일선과 金尚培가 다시 영접도감을 통해 한글 편지를 보내게 했다.<sup>57)</sup> 이러한 사례들은 조선통사들이 조선에서 폭넓은 인맥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청의 조선통사들은 조선 사역원의 역관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로 같은 지위에 있었고 업무상의 교류도 잦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의 입관 전부터 조선의 女眞學 역관들은 정명수를 비롯한 청의 통사들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다.<sup>58)</sup> 입관 이후에도 이일선 등 청나라 조선통사들은 조선 역관들과 깊은 친분을 유지했다.

1660년 義州 小通事 宋愛貞은 差使員이 탄 말을 빼앗은 사건으로 인해 온 가족이 유배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당시 이일선은 그를 구명하게 위해 노력했지만

53) 『비변사등록』 34책, 숙종10년 2월 26일; 『승정원일기』 302책, 숙종10년 2월 15일.

54) 『승정원일기』 143책, 효종7년 12월 22일; 李滄, 『松溪集』 권7 「燕途紀行下」.

55) 『조선현종개수실록』 권15, 현종7년 5월 18일; 『조선현종실록』 권13, 현종8년 1월 11일; 『조선현종개수실록』 권16, 현종8년 1월 11일; 朴世堂, 『西溪先生集』 권13 「碣銘·禮曹參判金公墓碣銘」.

56) 『승정원일기』 252책, 숙종2년 3월 16일.

57) 『승정원일기』 288책, 숙종8년 2월 23일.

58) 劉△睿, 2015, 「조선시대 女眞通事의 역할—淸·明 교체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쪽.

실패했다.<sup>59)</sup> 한편 1662년 鄭太和가 進賀兼陳奏使로 북경에 갔을 때 이일선의 14세된 아들이 玉河館으로 찾았다. 조선 역관들은 이전부터 조선에서 사신이 오면 이일선의 아들을 초대했다고 하면서 그에게 부채, 붓, 먹거리를 주고 심지어 원숭이를 부리는 사람도 불러서 그를 기쁘게 했다.<sup>60)</sup> 북경을 떠날 때도 사절단은 먼저 출발하고 張炫, 趙東立, 徐孝男 등 조선 역관들은 李一善과 張孝禮 등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에야 사절단을 뒤따랐다.<sup>61)</sup>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이일선을 비롯한 청나라 조선통사들이 조선 역관들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관리들도 이러한 친분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沈益顯과 申謁이 북경에 사절로 출발하기 전에 숙종은 그들에게 “君弱臣強”이라는 소문의 출처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sup>62)</sup> 그들은 “이일선과 장효례 같은 무리들은 성정이 매우 불순하니, 만약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갑자기 묻는다면 사실을 캐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노여움을 사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와 평소에 친분이 있는 역관을 시켜 먼저 그의 처소에 가서 조용히 그 전말을 말한 뒤에 불러다 묻는 것이 좋은 계책일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sup>63)</sup>

또한 이일선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불편한 조선 역관들을 탄압했다. 예를 들면, 1659년 이일선의 처남 姜夢泰가 북경에서 사업에 실패하자 이일선은 그가 욕심을 부려서 실패했다고 질책했다. 당시에 堂上譯官 李馨白은 북경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후 “李通官은 강몽태가 욕심이 많아서 참수를 당할 수

59) 『승정원일기』 160책, 현종1년 2월 11일.

60) 鄭太和, 『陽坡遺稿』 권14 「飲冰錄·九月」. “李一善之子年十四歲者到館門, 譯輩言自前使臣無不招見云, 使之招來, 給扇筆墨以送, 譯輩引入持猴之人, 呈其戲.”

61) 鄭太和, 『陽坡遺稿』 권14 「飲冰錄·十月」. 張炫趙東立徐孝男等自北京迫至, 歷往李一善張孝禮等之家, 喫饌而來也.

62) 1674년 현종이 붕어했을 때, 청나라 칙사가 조선에 와서 孝敬殿에서 제례를 두 거행했다. 遠接使인 吳始壽(남인)가 조선통사 張孝禮에게 두 번 제례를 올린 이유를 묻자 청의 사신은 조선을 “君弱臣強”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조선의 군신은 이를 현종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으나 당시에는 오시수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1680년 許積의 서자 許陞이 종실 福昌君, 福善君, 福平君의 3형제와 역모를 꾸민 일로 발생한 “삼복의 옥” 이후에는 남인이 대거 해임되고, 서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남인을 정산하기 위해 서인은 숙종에게 연행사를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王桂東, 2014, 앞의 논문, 119-124쪽 참조.

63) 『조선숙종실록』 권10, 숙종6년 8월 10일.

도 있다고 걱정하여 자신과 가까운 조선통사 趙東立을 시켜 사신들에게 경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동립은 뇌물을 받고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이에 이일선은 이형백이 자신과 조동립을 모함한다고 여겼고 “네(이형백)가 살아남으면 나는 죽어야 하고 내가 살아남으면 네가 죽어야 한다. 우리들 다 살아남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이 일을 영접도감에게 알리고 이형백을 쫓아내게 했다.<sup>64)</sup> 영의정 정태화는 “이형백을 엄벌해야 이일선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일선은 반드시 화를 낼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sup>65)</sup> 이형백은 결국 해임되었다.<sup>66)</sup>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일선 등 조선통사는 조선에서 많은 친척과 친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역원의 역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일선은 자주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도 이런 관계를 인치하고 있었으며, 필요할 때는 조선통사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 외교적 전략을 구사했다.

#### IV. 조선출신 기인의 양면성

조선 조정에게 이일선 등 조선통사가 양면성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그들이 조선 조정에게 정보, 조언, 심지어 중재를 제공하는 소중한 협력자였다. 한편에서는 그들도 뇌물을 요구하고 심지어 조선 관리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사악한 인간”이었다.

64) 『승정원일기』 158책, 현종즉위년 11월 11일. “一善乃詰問馨白曰, 俺之妻媀夢秦, 運餉商賈金承男·金貴男·趙興朴等, 今春隨謝恩使, 入北京, 買賣失利, 俺謂夢秦等曰, 汝輩, 去冬至使行得利而歸, 不自知足, 旋復入來, 愆心如此, 天宜降殃, 今番失利, 理所當然云云. 此不過一時閑說戲談, 而聞汝自北京回來之後, 構虛捏無, 揚言于人曰, 李通官言夢秦輩用心如此, 其罪可斬, 使趙東立, 傳告使臣, 而東立受賂, 中間終不傳告云云……汝存則吾亡, 吾存則汝亡, 決不可兩存, 詰責良久, 姑令退出以待, 使張炫等, 以此曲折, 送言於臣等.”

65) 『승정원일기』 158책, 현종즉위년 11월 13일. “鄭太和曰, 必從重罰, 可解彼姑怒, 而若欲治, 則彼必不快矣.”

66) 宋浚吉, 『同春堂先生文集』 권10 「答鄭相國」.

청나라 사절단이 조선을 방문할 때나 조선 사절단이 청나라를 방문할 때 조선 관리들은 자주 이일선에게 정보를 묻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심지어 증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명수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조선 조정은 그에게 청나라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현안에 관한 증재를 부탁했다.<sup>67)</sup> 적어도 건륭 시대까지 徐宗順 등 조선 통사들에게도 조선 조정과 관리들은 이러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sup>68)</sup>

1680년 三福의 獄이 발생하자 숙종은 謝恩兼陳奏使 沈益顯와 申晷에게 지시하여 이일선과 다른 통사들에게 강희제가 청나라를 방문한 福善君 李栲을 알현했을 때 말한 君弱臣強說의 유래에 대해 묻게 했다. 이일선은 강희제가 이남을 引見했을 때 자신이 통역을 맡았다고 말하고 “황제가 이남에게 이르기를 ‘그대 나라의 신하들이 於透應 於虛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수 없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주어 於透應 於虛(eruhun ehe)는 곧 強하고 惡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라고 답했다. 金大憲도 당시 乾淸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李栲이 나오자 “신하들이 강하다는 말을 館所에 전파하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張孝禮도 “어느 해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황제께서 사신을 乾淸宮에서 불러 보시고 양반이 강하여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sup>69)</sup> 이처럼 이일선 등 조선통사를 통해 군약신강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84년 瀛昌君 李沈과 尹以濟가 出使를 마치고 돌아온 후 숙종은 그들에게 청나라의 상황을 물었다. 尹以濟는 청나라가 북방 몽골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일선이 “눈앞에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가 닥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일선이 신임 禮部尚書 額興格에 대해 “(그가) 예부에 오래 있게 되면 훗날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스럽다.”라고 했다고 보고했다.<sup>70)</sup> 이 사례를 통해 이일선이 청 조정의 상황과 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조선 관리들에게 전했다

67) 김남운, 2007, 앞의 논문, 273쪽.

68) 劉潤澤, 2022, 앞의 논문, 123쪽.

69) 『조선속중실록』 권10, 숙종6년 윤8월 20일.

70) 『조선속중실록』 권13, 숙종8년 11월 24일.

을 알 수 있다.

이일선은 청나라와 문제가 발생하면 조선에 조언을 해주거나 중간에서 일을 중재하기도 했다. 1657년 金秋立, 崔振南 등이 북경으로 가는 길에 불법적으로 焰硝를 구입한 일이 발각되자 청나라는 조선 관리들과 회동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칙사를 보냈다.<sup>71)</sup> 조선 관리들은 만약 죄인들을 고문할 경우 왕이 親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역관 玄德宇를 시켜 이일선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일선은 西正使가 성질이 급하므로 오늘 설득할 수 없지만, 자신이 내일 잘 설명하면 서정사를 설득할 수 있다고 대답하며, 자신이 “本國(조선)의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sup>72)</sup> 그 뒤에 奏文 草本을 작성했을 때 칙사는 조선 통사들에게 구두로만 전달하게 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일선은 일부터 초본을 보냈다. 이 때문에 칙사는 문서를 감정할 때 이일선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칙사는 이일선이 최진남 등 조선인들을 비호하고 있을까 의심했던 것이다.<sup>73)</sup> 또한 1662년 조선인의 越境으로 청나라가 칙사를 보내 義州府尹 李時術를 심문했을 때 이일선은 최선을 다해 중재했다.<sup>74)</sup> 심지어 칙사와 奏文 내용을 협의하기 전에 몰래 조선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문을 매듭지을 때 칙사가 반드시 성을 낼 것이고 나도 거짓으로 성낼 테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강력히 따져야 한다.”<sup>75)</sup> 이 두 사건은 이일선이 청나라 내부에서 조선을 돕는 역할을 했

71) 『조선효종실록』 권18, 효종8년 4월 2일.

72) 『승정원일기』 145책, 효종8년 3월 29일. “又啓曰, 明日查問時, 若或罪人拷掠之舉, 則自上仍爲親臨, 事體未安, 故朝者, 使差備譯官玄德宇, 措辭微通於一善處, 而適緣煩擾, 未及言之矣……一善答曰……今若以此意圖之, 則西正使性急且峻之人, 不無致疑於俺言, 今日則似難微通, 明日查問時, 當臨時觀勢, 仰瞻天顏, 以未寧之意, 善爲措辭周旋, 則西正使, 似必動聽云. 此意出於實情, 亦似有理矣. 且令玄德宇等, 以明日罪人查問時, 傳語之際, 善爲周旋, 俾無弊端, 則朝家必有嘉尚之意, 亦通於大通官金德承則曰, 俺於本國之事, 敢不盡心.”

73) 『승정원일기』 145책, 효종9년 4월 6일. “又啓曰, 兵曹判書許積, 刑曹判書鄭致和, 參判金佐明等, 來詣館所後, 四勅會坐上使之房, 招入三宰臣, 接膝同坐, 奏文草本, 方爲相議勘定, 而繁文枝語, 盡爲刪改, 務盡要約, 從容講構, 未易完了, 而只令金德生·尹堅等, 言語相傳, 一善則故令出送, 文書勘定之際, 使不得干豫云, 聞其氣色, 則勅使致疑於一善之營護振南輩, 如是擯不與焉云, 敢啓.”

74) 『조선현종실록』 권5, 현종3년 5월 17일; 『승정원일기』 177책, 현종3년 11월 23일; 『조선현종개수실록』 권8, 현종3년 11월 23일.

75) 『조선현종개수실록』 권7, 현종3년 5월 23일.

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이일선이 조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는 많다. 예를 들면, 1682년 숙종이 전염병으로 칙사의 下馬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李世翊은 이일선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일선은 “전염병을 핑계로 대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칙사가 이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칙사를 맞이할 때 바람을 맞아서 몸이 불편하다고 하고, 내일 하마면 참석이 어렵다고 하면 이를 핑계로 삼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그 뒤에 이일선은 정사와 부사의 처소를 왕래하며, 결국 숙종이 참석하지 않도록 중재했다.<sup>76)</sup> 같은 해에 이일선은 또한 “청나라는 남방을 평정했기 때문에 천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進賀도 모두 올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선에 와 있을 때 몽골의 왕들이 이미 진하를 바치고 있으니 조선의 진하 사행도 늦어서는 안됩니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청나라에 노쇠한 대신을 파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拜跪할 때 격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청나라에게 모욕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sup>77)</sup> 이외에도 이일선은 조선 사절단의 방문을 대접하기 위해 玉河館의 담을 넓히고 건물을 증축하도록 하기도 했다.<sup>78)</sup>

이일선의 조언은 조선 조정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예를 들면, 1662년 이일선은 조선 조정에게 許積을 進賀正使로 파견할 것을 건의했지만, 조선 대신들은 허적이 삼정승이 아니므로 부사로만 파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종은 “저들이 이미 무방하다고 하였더니 정사로 차출하여 보내면 일을 일으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sup>79)</sup> 비변사가 이 일을 이일선과 의논하여 그의 동의를 얻

76) 『승정원일기』 288책, 숙종8년 2월 22일. “李世翊, 以迎接都監言啓曰, 臣等卽入館所, 要見大通官, 則一善等, 令譯官傳言曰, 俺等, 若爲出去, 則以中間周旋, 不無見疑於勅使之事, 當以都監所請, 直言於勅使云. 且曰, 拘忌之疾, 已爲恒談, 勅使必不信聽. 當以自上迎勅時觸風, 氣候不平, 明日宴禮, 決難親臨之意, 言送于俺等, 則亦當以此周旋矣. 臣等依其言送言, 則一善先往于勅房, 往復於副勅, 至於再次, 則答以國王以待客之道, 必欲親臨宴所, 而氣體果爲未寧, 則勢難強臨, 此則勢無奈何, 而前頭必有請宴之舉, 豈無接待之時乎爲言.”

77) 『승정원일기』 288책, 숙종8년 2월 24일. “尹以道, 以迎接都監言啓曰, 卽者李一善送言于臣等曰, 南方平定, 天下大慶, 外國進賀, 想必趁時齊到. 俺等來時, 蒙古王以進賀入去, 本國使行, 不可遲緩. 且以老病人, 差送使臣, 時有口步不良, 拜跪失儀之事, 見侮於彼人, 朝廷不可□□, 敢啓.”

78) 鄭太和, 『陽坡遺稿』 권14 「飲冰錄·九月」.

79) 『비변사등록』 22책, 현종3년 5월 18일.

은 후 현종은 비로소 허적을 부사로 임명했다.<sup>80)</sup> 이일선은 이처럼 조선 사절단의 구성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물론 이일선이 조선 조정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1674년의 進賀兼冬至使는 조선이 새로운 城池를 건설하고자 한다는 뜻을 이일선 등에게 말하고 청나라 兵部와 禮部의 의증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일선 등 통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를 거절했다. “문서가 있으면 우리는 전달하겠다. 하지만 천하가 혼란에 빠지고, 오늘 여기에 반란이 생기고 내일 저기에 반란이 생기는 때에 너희 나라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아문에게 전할 수 있느냐?”<sup>81)</sup>

또한, 이일선이 무상으로 조선을 도운 것은 아니었다. 이일선은 다른 조선통사들과 마찬가지로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으며, 조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焰硝 사건이나 이시술 사건에서 조선 조정은 이일선에게 증채를 요청하고 그에게 막대한 재물을 제공했다. 이일선 등 통사들의 뇌물 요구에 대해 조선 조정도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sup>82)</sup> 그들에게 재물을 적게 준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83)</sup> 이시술 사건에서 현종은 심지어 “그의 환심을 사려면 뇌물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일선이 마음과 힘을 다 쏟으면 무사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sup>84)</sup> 조선 조정이 이처럼 이일선 등 통사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의 뇌물 요구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1657년 이일선이 조선을 떠나기 전에 품질 좋은 淸心元을 얻으려고 계속 요구했다. 조선 조정이 청심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일선은 중간에 품질과 맛

80) 『비변사등록』 22책, 현종3년 5월 18일.

81) 『동문회고』 補編 권1 『使臣別單』1, 41b-45a. “令譯官徐孝男等以我國城池修築之意言於李一善諸譯, 使探兵禮二部意. 則一善巨昆等作色曰, 若有文書, 則俺等唯當奉傳而已, 當此天下擾亂, 今日某處叛, 明日某處叛之時, 你國何可以此等事發言, 而俺等亦何敢發端衙門乎.”

82) 『조선현종실록』 권17, 현종10년 7월 23일.

83) 『승정원일기』 208책, 현종9년 5월 25일. “積曰, 所給元數若小, 則彼輩必欲生事.”

84) 『조선현종개수실록』 권7, 현종3년 5월 15일; 『조선현종실록』 권5, 현종3년 5월 21일.

이 좋지 않다 했고 다시 진품 청심원을 요구했다.<sup>85)</sup> 1670년 이일선은 조선 조정에게 長劍과 조총을 각각 4개씩, 두 大通官이 각각 3개씩 요구한 반면, 청나라의 정사와 부사가 요구한 것은 단 2개에 불과했다.<sup>86)</sup> 이일선은 심지어 낙마하다가 다치거나 팔이 아프다는 핑계로 조선의 御醫에게 진료를 요구하기도 했다.<sup>87)</sup>

뿐만 아니라 이일선은 걸핏하면 사소한 일로 조선 관리를 때리거나 모욕을 주었다. 1662년 이일선은 자신에게 제공해준 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司僕 次知書吏를 잡아들여 다섯 번 곤장을 치고, 더 좋은 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sup>88)</sup> 또한, 귀국 도중에도 보내온 소가 살찌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順安縣丞을 잡아들여 갖은 모욕을 가했다.<sup>89)</sup> 1670년에는 자신에게 관례대로 지급하던 사슴 가죽이 나오지 않자 應辦色 次知書吏를 잡아들여 열두 번 곤장을 때렸다.<sup>90)</sup>

이일선에 대한 조선 관리들의 평가는 서로 엇갈렸다. 어떤 관리들은 이일선이 “통사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인간”(衙譯中最獐者)이라고 생각했다.<sup>91)</sup> 1662년 현종은 이일선이 칙사에 따라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일선이 나왔다. 그는 흉악해서 접대하기 어렵다”라고 한탄했다. 옆에 있는 도승지 柳滄도 “저도 西路에서 李一善의 짓을 익히 보았습니다. 그를 사람의 도리로서 책할 수 없습니다.”라고 국왕의 말에 동조했다.<sup>92)</sup> 李端相도 이일선 무리가 한 번 허세를 하면 조선 조정은 수천 금을 써도 아끼지 않지만, 수백 금을 써서 연행사단을 은밀히 천하의 일을 탐지하게 할 수 없는 현실을 한탄했다.<sup>93)</sup> 이단상은 이일선 자신의 정보 수집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글을 통해 조선 문인들이 이일선의 탐욕스러움에 대해 강한 불

85) 『비변사등록』 19책, 효종8년 4월 10일; 『승정원일기』 145책, 효종8년 4월 9일.

86) 『승정원일기』 220책, 현종11년 7월 17일.

87) 『승정원일기』 173책, 현종3년 4월 24일; 『승정원일기』 196책, 현종7년 7월 4일.

88) 『승정원일기』 174책, 현종3년 5월 22일.

89) 『조선현종실록』 권5, 현종3년 6월 7일.

90) 『승정원일기』 196책, 현종7년 7월 20일.

91) 李滄, 『松溪集』 권7 「燕途紀行下」.

92) 『승정원일기』 173책, 현종3년 4월 16일. “上曰, 李一善出來云, 其漢之凶悖, 甚難待矣. 柳滄曰, 臣亦於西路, 慣見李一善之事, 不可以人理責之.”

93) 李端相, 『靜觀齋先生集』 권10 「答趙參判」 「答金久之」. “我國若不惜數百金, 密付使行, 使之探知雲下事, 則寧有全然不知之理. 而朝廷吝此錙銖, 一不生意於此, 李一善輩一聲虛喝, 則雖費數千金而不敢惜.”

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일선의 횡포에 맞선 인물들은 영웅으로 여겨졌다. 예를 들면 任有後는 이일선이 조선인 포로 출신으로 이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니 그의 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sup>94)</sup>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金始振이 이일선의 친척을 참수하자 “은 府內가 두려워 떨었으며 가깝고 먼 곳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sup>95)</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의 군신들은 이일선이 자신의 모국인 조선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조선을 도우려 했음을 분명히 느끼기도 했다. 이일선은 종종 조선을 “本國” 또는 “我國”이라고 불렀다.<sup>96)</sup>

이러한 소속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三道溝 사건 이후 이일선이 조선을 도운 일이었을 것이다. 1685년8월, 함경도 邊民과 土兵 수십 명이 압록강을 건너가 삼도구 일대에서 인삼을 채취하다가 청 황제의 지시로 輿圖를 제작하기 위해 지리를 조사하던 청나라 관병과 충돌하게 되었다. 청나라의 駐防 協領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열두 마리의 말이 조선인의 조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 조선인 한 명이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으며,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청나라는 조선 조정과 칙사가 함께 범인을 심문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칙사에게 조선 국왕을 “察議”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조선 국왕이 사죄한 뒤에 청은 조선 국왕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 사신 鄭載嵩 등이 황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禮部에 문서를 제출하고 항의하자 청나라는 조선 조정에 이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sup>97)</sup> 그 뒤에 파견된 조선 사신은 이일선에게 이 일을 중재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국왕

94) 任相元, 『恬軒集』 권34 『行狀·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任公行狀』, “淸譯李一善肆爲貪暴, 跨馬入關, 莫敢誰何, 國人憤惋. 公慷慨抗疏, 以爲一善特我民之被俘者, 倨傲若此, 請奏治其罪. 時皆隨之.”

95) 朴世堂, 『西溪先生集』 권13 「禮曹參判金公墓碣銘」;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五集 「政法集」 第二十五卷 「牧民心書」 卷十 「刑典六條·禁暴」.

96) 『승정원일기』 158책, 현종즉위년 11월 11일.

97) Seonmin Kim, 2017, *Ginseng and Borderland: Territorial Boundaries an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Qing China and Chosŏn Korea, 1636-1912*.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47; 李花子, 2006, 『淸朝與朝鮮關係史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55-61쪽 참조.

께서 별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당신도 본국 사람이니, 힘을 다해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일선은 명확하게 대답했다. “나도 조선인이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은 모두 조선의 은혜입니다. 죽음을 앞둔 나이에 보답의 성의를 보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이일선은 친구인 吏部侍郎 沙海를 통해 大學士 明珠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조선 국왕에 대한 벌금은 면제되지 않지만 사신에 대한 처벌은 요구하지 않았으며, 조선의 謝罪, 謝恩, 貢物도 모두 면제되었다.<sup>98)</sup>

이러한 사례는 이일선이 황제에게 복무하는 기인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인으로서 매우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을 도우면서 자주 뇌물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조선에 대한 그의 지원이 단순한 개인적 이득 때문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강한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정체성은 조선출신 기인들, 특히 조선통사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고 적어도 건륭 연간까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 관리들은 이일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가 청나라를 위해 조선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예를 들면, 1662년 이일선은 鐵山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척에게 椴島에 대한 정보를 물었는데, 이는 조선 관료들의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일선이 청나라가 가도를 점령하려는 계획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에 조선 조정은 이일선의 가도 방문 요청을 거부했다.<sup>99)</sup>

또한 조선 대신들은 자주 이일선의 의도를 의심하며, 그를 “악행이 더 심하며,

98) 『동문회고』 補編 권2, 「使臣別單」 2, p.37a-42b. “使譯輩言於李一善曰, 我國以國王受罰爲極冤, 汝亦本國之人, 望須極力周旋, 以圖寬免. 一善曰, 前日使臣呈文大觸疑怒, 其時物議或欲拘囚, 或欲拿送. 至於禮部撰出回咨時, 搜檢故事奔走震動, 到今寬免罰金實無可望. 然我亦朝鮮人, 我之喫着莫非朝鮮之恩, 垂死之年豈無報效之誠乎? 我與吏部侍郎沙海最善, 當力言於沙海. 厥後一善來言, 渠言於沙海曰, 崇德順治兩朝俱無朝鮮國王施罰之事, 卽今新進之人不解故事, 動輒施罰, 待外國之道不當, 如是云爾. 則沙海亦以爲然, 答云, 某條用力. 到今一善又來言, 罰金事雖不得寬免, 今番方物之全減, 使臣之寬免, 皆沙海力言於閣老明珠, 使之周旋……”

99) 『승정원일기』 252책, 숙종2년 3월 25일; 『조선속중실록』 권5, 숙종2년 3월 25일; 『조선속중실록』 권5, 숙종2년 8월 9일.

모든 중재 행위가 뇌물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sup>100)</sup> 이는 조선 군신들의 이일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동시에, 조선 조정이 그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려 했음을 보여준다. 조선 조정은 그가 청나라 관료이기 때문에 쉽게 거스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일선과 동시대의 조선통사들이 사망한 후에도 조선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여전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조선 연행사는 “최근의 통사들 중에는 金巨君이나 이일선과 같은 인물이 없어서 청 조정의 비밀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sup>101)</sup>라고 한탄했다. 동시에 조선 관리들은 “김거군이나 이일선 등은 험박과 갈취를 일삼고, 탐욕을 채우지 않은 적이 없다.”<sup>102)</sup>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이일선은 조선 사람들에게 서로 모순적인 두 가지 인상을 남겼다. 조선통사 이일선은 귀한 협력자이면서 동시에 탐욕스러운 인물의 대명사였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순치·강희연간에 활약한 청나라 조선통사 이일선의 다양한 활동을 분석했다. 조선통사의 우두머리였던 이일선은 당시 여전히 불안정했던 조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청나라의 관원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일선의 탐욕은 조선에 해를 끼쳤지만, 조선 조정도 그의 조선에 대한 유대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당시 많은 중요한 사건들에서 “본국” 조선의 국익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시할 수 없는 도움을 주었다. 이일선 덕분에 조선 조정은 여러 차례 조청 관계에서 불리한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세기

100) 『승정원일기』 158책, 현종즉위년 10월 20일.

101) 『동문휘고』 補編 권3 「使臣別單」 3, 17b. “但近來通官輩無如李一善金巨軍者, 故彼中朝廷機事漠難探得.”

102) 『승정원일기』 817책, 영조12년 1월 22일. “而自古金巨君·李一先輩, 豈無恐喝微索之舉, 而谿壑之慾, 何嘗盡充乎?”

말 청나라의 적지 않은 압력에 대해 조선의 외교 정책에서 이일선 등 조선통사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일선은 대표적인 조선통사로 동시대의 다른 조선통사들과 유사한 측면도 많았다. 徐凱는 팔기에 편입된 조선인들이 만주인과 동화되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지적했다. 첫째,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며(剃髮易服) 만주의 관습을 따르게 된 것이다. 둘째, 성씨와 이름의 표기법이 대부분 만주와 일치하게 된 것이다. 셋째, 만주의 팔기 官學에서 학문을 익히고 功名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sup>103)</sup> 이러한 특징들을 조선출신 기인인 조선통사에서도 볼 수 있다. 청나라의 관리이자 기인으로서 만주어를 사용하고 만주식 이름을 썼던 이일선 등 조선통사들은 어느 정도라도 만주인과 동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스스로 조선인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本國”, “我國”이라는 말로 조선을 지칭하기도 했다. 그들이 기인과 조선인이라는 이중 신분 정체성을 지니고 할 수 있다.

이일선과 동시대의 조선통사들은 여전히 조선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있었으며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기도 했다. 동시에 청나라의 조선통사들과 조선 역관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선에서 형성된 이처럼 광범위한 인맥은 그들이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통사들은 조선 사무를 전담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칙사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들은 황제에게 복무하는 기인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에서 조선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반면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선 조정은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 했으며, 조선 조정이 제공한 막대한 재물은 그들에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은 모두 조선의 은혜”라는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이로써 그들의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었다.

103) 徐凱, 2014, 「滿洲八旗中的高麗士大夫」, 『燕園明清史論稿』 上冊,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349, 350 쪽.

따라서 조선 군신들은 이일선 등 통사들에 대해 모순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청나라와의 교섭에서 꼭 필요한 협력자로 인식하여 큰돈을 들여 대가를 지급하며 의존했지만, 반면에 그들의 탐욕과 부패에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선의 관리들에게 청나라 조선통사는 자신들과 같은 조선인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외국인이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동문회고』, 1978,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朴世堂, 『西溪先生集』, 한국고전종합DB

李潛, 『松溪集』, 한국고전종합DB

李端相, 『靜觀齋先生集』, 한국고전종합DB

任相元, 『恬軒集』, 한국고전종합DB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고전종합DB

鄭太和, 『陽坡遺稿』, 한국고전종합DB

郎球等, 「題為補選朝鮮通事事」, 順治十年四月二十八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內閣全宗, 02-02-012-000823-0014.

弘昼等編, 2002, 『欽定八旗滿洲氏族通譜』, 沈陽: 遼海出版社

강희 『大清會典』, 1992, 台北: 文海出版社

### 2. 연구논문

郭壽, 2017, 「清鮮交涉中的鄭命壽(1633-1653)」, 東北師範大學 석사학위 논문

金錦子·李丹, 2011, 「清朝會同四譯館中的朝鮮通事考論」,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期

김남윤, 2007, 「병자호란 직후(1637~1644) 朝淸 關係에서 ‘淸譯’의 존재」, 『韓國文化』 40

김선민, 2014, 「朝鮮通事 굴마훈, 淸譯 鄭命壽」, 『淸史研究』 41

Seonmin Kim, 2017, *Ginseng and Borderland: Territorial Boundaries an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Qing China and Chosŏn Korea, 1636-1912*,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박현규, 2021, 「조선출신 滿洲旗人 韓氏·金氏 일족 묘비문과 정착 특징」, 『中國史研究』 132

朴泓燕, 2011, 『清代八旗朝鮮通事研究』, 北京師範大學 석사학위 논문

徐凱, 2014, 「滿洲八旗中的高麗士大夫」, 『燕園淸史論稿』 上冊,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楊海英, 2002, 「朝鮮通事古爾馬洪(鄭命壽)考」, 『民族史研究』 3

王桂東, 2014, 「朝鮮肅宗即位初年淸-朝關係之暗流」, 『中國邊疆民族研究』 第八輯

우경섭, 2009, 「17세기 전반 滿洲로 歸附한 조선인들—『八旗滿洲氏族通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8

- 劉建勳, 2023, 『清代朝鮮通事研究』, 中國人民大學 석사학위 논문
- 劉△睿, 2015, 「조선시대 女眞通事의 역할—明·清 교체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劉小萌, 2013, 「旗籍朝鮮人安氏の家世與家事」, 『清史研究』 4
- 劉潤澤, 2022, 「鳳凰城通事徐宗順活動考」, 『東北亞外語研究』 4
- Runze Liu, 2024, “The Identity of Joseon Interpreters in the Qing Empire”,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7, no. 1.
- 李丹, 2017, 『試論清朝會同四譯館中的朝鮮通事』,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 李丹, 2018, 「明末清初朝鮮移民金氏新達理家族研究」, 『中州學刊』 5
- 李丹, 2019, 「朝鮮通事群體與朝清關係研究—以鳳城徐氏家族為中心」, 『한중인문학연구』 65
- 任桂淳·俞海燕, 2013, 「清初滿洲八旗通事官述略」, 『紀念王鍾翰先生百年誕辰學術文集』,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李忠輝, 2019, 「清代高麗佐領金新達禮兄弟考略」, 『滿族研究』 1
- 李忠輝, 2019, 「清代朝鮮通事家族的形、更迭與衰落—政治與語言的抉擇」, 『民族翻譯』 4
- 李忠輝·柳楊, 2020, 「清代朝鮮通事在朝鮮漂民救助中的作用考析」, 『民族翻譯』 4
- 李忠輝, 2021, 「청나라 제1대 조선어통역사의 한어 음역이름에 관한 연구」, 『중국조선어문』 4
- 李花子, 2006, 『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張存武, 2023, 「朝鮮對清外交機密費之研究」, 『清代中韓關係史論集』 2, 台北: 秀威出版
- 曹永祿, 1990, 「鮮初의 朝鮮出身 明使考—成宗朝의 對明交涉과 明使 鄭同」, 『국사관논총』 14
- 조일수, 2002, 「찬출(撰出)된 악한, 정명수와 『인조실록』의 개찬」, 『한국학연구』 66
- 鄭求先, 2004, 「鮮初 朝鮮出身 明 使臣의 行跡」, 『慶州史學』 23
- 黃麗君: 2019, 「八旗制度與族群認同: 清前期中朝關係史中的內務府高麗佐領金氏家族」, 『清史研究』 2
- Sixiang Wang, 2023, *Boundless Winds of Empire: Rhetoric and Ritual in Early Chosŏn Diplomacy with Ming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25년 03월 14일 심사완료일: 202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14일

■ Abstract ■

##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dentity of Chosŏn Interpreter during the Early Qing through Yi Il-sŏn

Liu Runze(Renmin University of China)

As a prominent Chosŏn interpreter active during the Shunzhi and Kangxi reigns of Qing China, Yi Il-sŏn was repeatedly dispatched to Chosŏn Korea in official roles such as *tongguan*, *tidu*, and *laiziguan*. He cultivated extensive personal networks within Korea and often leveraged his position to assist relatives and acquaintances. He particularly maintained close ties with interpreters of Chosŏn *Sayŏkwan*, fostering frequent exchange and sustained contact. Although an official of the Qing Empire and a bannerman acculturated into Manchu society, Yi retained a profound sense of identity as a Korean, providing counsel, intelligence, and support to the Chosŏn court. He wielded considerable influence as the leader of Chosŏn interpreters in the still-fragile Qing-Chosŏn diplomatic relationship, helping the Chosŏn court reverse several unfavorable situations. Perceptions of Yi within Chosŏn officialdom were contradictory or ambivalent. While some criticized him as self-serving and driven by greed, others recognized him as a valuable collaborator and intermediary.

Key words: Yi Il-sŏn, Chosŏn interpreter, Korean bannermen, interpreter